# 주택대출 34조… 한국도 서브프라임 위기?

## 전체 주택 대출의 12~13% 미국과 비슷
## 금리 상승기 가계 부담 커 금융 불안 요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비슷한 수준의 저신용자에 대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4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신지선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조사역은 12일 국제금융센터에 기고한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신용등급 분포자료를 토대로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조4천억달러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분류된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없어 미국과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국내 신용정보회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4조원 정도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2~13%를 차지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9조원으로 전체 217조원 대비 9% 수준이었지만,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전체 59조원 중 25.1%인 15조원이 저신용 주택담보대출로 추정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경우 미국이 5.12%(올해 6월 말 기준)로 0.9%(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이 많아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덜하며 ▲매매가 용이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아 매각 등을 통해 쉽게 연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중 90일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0~70%로 19.4%에 불과한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일단 연체상태로 진입하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 상환부담이 급증해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금리 상승폭에 상한을 두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대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장기로 운용하면 과다차입을 조장, 거치기간 종료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거치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운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 美 금리 0.25%P 인하

## 재할인율도 0.25%P 내려
## 인하 폭 실망…주가 급락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기금 금리가 11일 0.25%포인트 낮춰져 4.25%로 결정됐다. 또 재할인율도 0.25%포인트가 인하돼 4.75%로 결정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번째 연속해서 이뤄진 것이다.

FOMC는 이날 성명서에서 "주택시장의 조정이 심화되고 기업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최근 몇 주간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앞서 2차례 실시한 금리인하와 함께 완만한 경제성장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OMC가 최근 3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친 금리 1.0%포인트 인하가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로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내년 1월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FOMC 또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요소들 가운데 에너지와 상품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하게 만들 수 있다"며 "FOMC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어 인플레이션의 진전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증권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금리가 0.5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연합뉴스

# 기아차,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 테마 여행 이벤트 등 마케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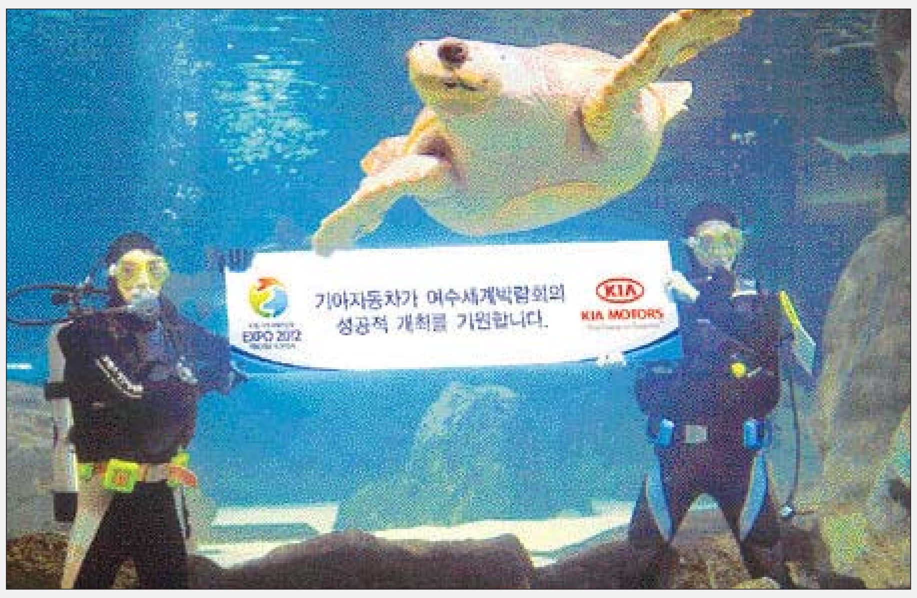
기아자동차㈜가 12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다양한 '여수엑스포 마케팅'에 나섰다. 기아차는 우선 내년 2월 중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다이버들이 '기아차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펼치는 이색 수중쇼를 선보인다.

또 아쿠아리움 입구와 내부에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각종 광고판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를 홍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오는 16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스포티지와 함께하는 여수 테마여행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테마여행 이벤트는 응모한 고객 중 40명을 선정해 연말 1박 2일간 액츄얼 DMB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스포티지를 타고 여수의 청정지역을 여행하는 이벤트이며, 퀴즈 이벤트는 퀴즈 정답자 중 50명을 추첨해 영화 예매권(1인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다이버들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기아차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수중쇼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 삼성, 세계 최초 31인치 OLED TV 개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1인치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14인치 제품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제품 사양 등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전시를 통해 언제든지 이 같은 대형 OLED TV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확인시킬 계획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현재 기술력으로 40인치 이상 TV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OLED TV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양산을 통한 시장 확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일부 고품격 휴대전화나 소니의 11인치 OLED TV 등 한정판 TV 제품이 시장에 나와있는 정도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5년 5월 당시 세계 최대 TV용 40인치 HD급 AM OLED 패널을 생산함으로써 주목받았으나 영상 구현 등 여러 면에서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 실제 TV로 제품화하는 데 애로를 겪어왔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연구 끝에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번에 30인치대 대형 제품을 전시회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윤영로 금감위 부위원장 은행장 공모 지원

# 금융당국 인사태풍 예고

금융감독 당국에 인사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기업은행장 공모에 전격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금융감독원 임원에 대한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장 자리를 놓고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윤 부위원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 인사가 이뤄질 경우 윤 부위원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아 수협의 부실 처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최고의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기업은행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재경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박대동 금감위 상임위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자리를 옮길 경우 부위원장 후보로는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금감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 가운데 한 자리는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승진하고 나머지 자리는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가계자산, 부동산→금융 이동

## 현대경제硏 "부동산 대세 하락기 접어 들었다"

국내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의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으나 건전성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저금리, 부동산자산의 수익성 악화로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2004년 83 대 17이었으나 2006년에는 76.8 대 20.4로 금융자산 비율이 상승했다.

앞으로 금융자산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부동산 비중 76.8%는 일본의 61.7%보다 15.1%포인트 높고 미국의 36%에 비해서는 2배에 이르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가격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보급률의 증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건전성은 취약해지고 있다. 금융자산의 잔액이 1991년 200조원에서 2006년 1천472조원으로 7배이상으로 증가했으나 금융부채비율은 1997년 15%에서 2002년이후 40%를 웃돌고 있다. 즉, 금융자산의 증가가 금융자본 보다는 금융부채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가운데 투기등급의 비중은 18.0%에 이르는데 이는 작년말보다 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예금·적금 등 안전자산에서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이 활발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

## 전경련, 차기정부 노동정책 설문

내년 2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노동정책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12일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1월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노동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노사관계 안정(25.4%), 여성·고령자 고용보호(7.5%),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6.7%), 노동관련 규제완화(5.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의 한국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중 9명이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대립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1.5%, '다소 대립적'이라는 답이 65.0%에 달했다.

노사갈등 및 분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조의 과다한 요구 35.1%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 29.4% ▲법과 제도의 미비 23.0% ▲외부세력의 개입 12.4%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 기름값 뛰니…

## 난방용 등유까지 경유에 섞어 팔아

세계적 초고유가로 국내 유류가격이 폭등하자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 송유관 도둑에 이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2일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올해 들어 5곳이었다.

제품 성질상 등유만으로는 차량 운행이 어렵지만 차량 연료탱크에 경유 등 기존 연료가 섞여 있으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저렴한 난방용 연료를 경유차량의 연료에 섞어 파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리원의 설명이다.

석유공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기준 전국 평균 등유가격은 ℓ당 1천100원 선이지만 경유 가격은 ℓ당 1천437원에 이른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연료에 용제나 톨루엔, 알코올 등을 섞는 유사 석유제품과는 또 다른 형태"라며 "현행 석유사업법은 난방용 연료의 차량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1천500만원의 행정처벌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유차량 운전자도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유품질관리원은 난방용 유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등이 시행되면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등유를 경유차량 연료로 파는 행위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직장인 스트레스 주 원인

## "과도한 업무·미래 불안감"

직장인의 87%가 회사 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자사 회원인 직장인 1천127명을 상대로 '직무 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복수응답)로 '과도한 업무량'(48.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회사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44.0%)이 2위에 올랐고 '업무에 따르는 책임감'(38.5%), '타사에 비해 뒤떨어진 복리후생'(34.2%),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23.4%), '상사와의 관계'(18.6%), '동료나 부하직원과의 대인관계'(15.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9.8%는 직무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 및 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H&T | [고정급150만원/정규직] 114 인바운드 상담원 | 초대졸/경력무관 | 2200~2400 | 12/14 | 062-350-6333 |
| 삼성출판사서광주교육본부 | 유치원 영어교사 | 대졸/경력무관 | 1400~1600 | 12/15 | 062-373-5346 |
| 디자인비전 | 맥편집 디자이너 경력 | 초대졸/경력3년 | 회사내규 | 12/17 | 062-233-8031 |
| 케이씨건설㈜ 광주지점 | 인테리어 설계기사 | 초대졸/경력1년 | 회사내규 | 12/18 | 062-654-0755 |
| ㈜제이원모터스 | [HONDA광주공식딜러㈜] 분야별 정규직 사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2/19 | 062-527-9999 |
| ㈜아이엔비코퍼레이션 | 법인회계. 결산 및 재무담당 | 고졸/경력2년 | 회사내규 | 12/19 | 062-222-6675 |
| ㈜노블레스아울렛 | 보안요원 구함 남,녀 28세 미만(경험자우대)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2/19 | 062-373-0718 |
| 창억떡전문점 | 푸드스타일리스트/제품 포장디자이너 | 초대졸/경력3년 | 회사내규 | 12/20 | 019-418-7466 |
| 뉴바이오㈜ | 회계관리 사무원 | 고졸/경력3년 | 1400~1600 | 12/20 | 062-973-6995 |
| ㈜옵테론 | 생산직 사원(조립, 제품검사)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2/21 | 062-972-5651 |
| 이레커뮤니케이션 | 영업관리자 | 초대졸/경력1년 | 1800~2000 | 12/21 | 062-351-6114 |
| LS 커뮤니티 | /중국해외근무/ 최고대우 VC++, 웹, 디자인 개발자 | 초대졸/경력2년 | 회사내규 | 12/22 | 070-7676-8477 |
| ㈜오리온 호서팀 | 할인매장 제품관리 판촉사원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12/22 | 062-373-2393 |
| 엘지전자 ㈜호남센터 | LG전자 서비스센터 취업 교육생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2/31 | 062-510-6190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희망의 김장 나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세주) '전남사랑회' 회원들이 12일 '희망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참석, 김치를 담그고 있다. 회원들은 이날 400포기의 김치를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가구 등 55세대에 전달했다.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제공〉